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Calligraphic Materials of Ancient East Asia and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저자 (Authors)	정현숙 Jung, Hyun-sook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0 , 2018.6, 303-332(30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0 , 2018.6, 303-332(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7812
APA Style	정현숙 (2018).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목간과문자, 20, 303-3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2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정현숙**

- I. 머리말
- II. 신라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
- III. 통일신라 촌락문서 글씨와의 연관성
- IV. 일본 아스카 목간 글씨와의 비교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과 두 종의 통일신라 촌락문서 글씨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일본 아스카 목간 글씨와의 비교를 통해 그 영향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월성 해자 목간 서예가 동아시아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월성 해자 목간 가운데 문서 목간 글씨는 원전과 방절, 유려함과 힘참, 변화미와 절제미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6세기 말경 하찰 목간에 복위풍이 나타나 신라의 서풍이 고품에서 중국풍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복위풍은 7세 초 이성산성 목간의 복위풍보다 더 능숙하여 왕경 관리의 글씨가 지방 관리의 글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7세기 말, 8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의 두 촌락문서 해서와 행서의 노련함과 출중함은 월성 해자 목간 글씨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100년 신라 서예의 진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서예가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계승되었음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7세기 일본 아스카 목간은 문장의 양식이나 글씨에서 백제, 신라를 계승한 사실을 확인할

* 본고는 2017년 10월 19일~20일 열린 한국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인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 의례와 월성해자 목간』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수 있다. 특히 8세기 초의 후지와라경 목간에는 북위풍이 쓰여, 이는 100여 년 전 신라에서 성행한 북위풍이 전승되었음을 말해 준다. 고대 일본은 고대 한국보다 출토 목간의 수가 월등히 많아 목간을 통한 문서 행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세기 후반 아스카 목간의 글씨는 6세기 후반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변화무쌍함과 능수능란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신라 왕경 관리 글씨의 출중함을 그대로 드러낸 월성 해자 목간은 동아시아 서예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서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핵심어: 신라 목간, 백제 목간, 월성 해자 목간, 통일신라 촌락문서, 일본 아스카 목간

I. 머리말

신라의 목간은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그리고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되었다.¹⁾ 성산산성에서는 가장 많은 250여 점의 목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상주 인근 지역에서 세금으로 보낸 물품의 꼬리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에 상부 보고서인 사면 문서 목간과 성산산성에서는 처음으로 간지가 적힌 ‘壬子年’ 양면 하찰 목간이 출토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532년 또는 592년인 ‘壬子年’은 북위풍인 점으로 보아 592년으로 간주되며, 6세기 말 신라 지방 관리의 성숙된 해서를 보여 준다.²⁾

이성산성 출토 목간 가운데 608년에 쓴 ‘戊辰年’ 사면 문서 목간은 당시 이 성이 주변의 여러 성과 긴밀한 군사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말해 주고, 이른 새벽부터 교신하던 전선의 긴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또 목간에 쓰인 목서로 7세기 초 신라 지방 관리의 웅장한 북위풍 육필을 감상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월성 해자 출토 목간 137점 가운데 목서 목간은 32점이다. 목간의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인데, 朱木, 밤나무, 버드나무류, 상수리나무류, 감나무류, 물푸레나무류도 한두 점씩 있다.³⁾ 목간의 형태는 단면, 양면, 사면, 육면 등 다양하며,⁴⁾ 용도는 대부분 문서다. 그 내용은 통신문, 세금 징수 간이장부, 행정 명령 기록, 불교 경전 제작, 의약기록 등에 관한 것이다.⁵⁾ 이들은 왕궁인 월성과 월성 북쪽을 둘

1) 신라의 목간과 목간문화에 관해서는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新羅 木簡文化의 전개와 특성」, 『民族文化論叢』 5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참조. 신라 목간의 글씨에 관해서는 정현숙, 2016, 「신라의 서예」, 다온샘, pp.101-110; 2017, 「신라의 서예」, 『한국서예사』, 미진사, pp.102-106 참조.

2) 필자는 6세기 금석문에 나타난 서체의 변천 과정을 통해 6세기 후반의 글씨로 본다.

3) 강애경, 2006, 「월성 해자 출토 목간 및 목제품의 수종」, 『月城海子 發掘調査報告書Ⅱ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참조.

4) 이동주, 2009, 「월성 해자 출토 목간의 제작기법」,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참조.

5) 윤선태, 2005, 「월성 해자 출토 신라 문서 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리산 주변의 관청에서 사용된 기록인데, 거기에는 한자를 한글식으로 표기한 이두문도 보여 6, 7세기 신라 왕경의 언어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출토된 일곱 점은 목간의 제작 연대와 해자 사용 시기,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를 통해 노동력을 동원·감독했던 사실, 가장 이른 시기의 이두 사용 사실 등을 알려 준다. 지방민의 관직인 ‘一伐’, ‘干支’가 적힌 목간은 노동을 뜻하는 ‘功’과 함께 연결되어 왕경 정비 사업에 지방민이 동원되었고 그들을 지방 유력자가 감독했음을 말해 준다. 이는 6세기에 이루어진 명활산성 축성(551), 남산신성 축성(591) 등의 큰 공사에 신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통제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월성 해자 목간 가운데 최초로 간지가 확인된 ‘丙午年’ 목간은 526년 또는 586년으로 추정되는데, 목서의 성숙된 해서는 586년에 쓴 것으로 보여 6세기 말 왕경 관리의 서사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월성 해자 목간의 목서를 통해 6, 7세기 신라 왕경 관리들의 글씨를 살피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을 문서 목간과 하찰 목간을 통해 고찰하고, 둘째, 7, 8세기 통일신라의 지본 촌락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신라 중앙 관리 글씨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셋째, 7, 8세기 일본 아스카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양국 관리 글씨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라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

월성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49번지 일대의 구릉지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궁성이다. 그 모습이 달의 형상을 닮아 月城 또는 新月城이라고 했으며, 왕이 거처한 곳이라 在城이라고도 했다. 신라는 6, 7세기에 외침으로부터 월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 기저부를 따라 해자를 설치하였다. 발굴 조사 결과 5세기 후반부터 南川이 접한 남면을 제외한 동·서·북 3면에 만든 石築式 또는 土壙式 해자가 확인되었다. 삼국이 통일되고 외침의 우려가 사라진 후 왕경의 대대적 정비 과정에서 해자를 메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 협소한 궁궐의 취약점을 보완했음이 드러났는데, 해자는 7세기 후반(679년경)에 폐기되었음이 밝혀졌다.⁶⁾ 목간은 대부분 토광식(또는 연못형)인 서북쪽 해자 개흙층에서 출토되었다.⁷⁾

문서 목간이 주를 이루는 월성 해자 목간은 하찰 목간이 주를 이루는 통일신라의 안압지 목간에 비해 원주형이나 다면이 많다. 삼각부터 육각까지 다양한 형태인 다면목간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물품의 꼬리표 역할 때문에 대부분 얇은 안압지 목간과 구별된다.⁸⁾

월성 해자 목간 가운데 다수의 사면 문서 목간은 대부분 묵흔이 사라져 버렸다. 그중에서 비교적 묵흔이 선명하면서 내용적으로도 주목되는 것은 149호(2호)와 150호(1호)다.⁹⁾ 특히 목간 149호(그림 1)는 문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月城孩子 發掘調査報告書 Ⅲ(4號 孩子)』, pp.509-512.

7) 목간 도면과 사진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月城孩子 發掘調査報告書Ⅱ -고찰-』, pp.227-371 참조.

8) 홍기승, 2013, 「경주 월성 해자·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참조.



그림 1. 월성 해자 149호(2호)목간, 6세기 후반, 신라. 19×1.2×1.2cm

그림 2. 월성 해자 (좌) 153호(12호)(24.5×4.7cm), (중) '丙午年' 후면(586)(24.7×5.1×1.2cm), (우) '安豆'(12.7×1.7×1.7cm) 목간, 6-7세기, 신라

장이 이두로 쓰여 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다.¹⁰⁾ 이 목간은 소나무의 상하를 줌과 부드럽게 다듬고 표면은 매끄럽게 손질했으며, 사면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첫 자를 시작한다. 1면은 3.65cm, 2면은 4.15cm, 3면은 4.25cm, 4면은 4.15cm를 띄우고 문장을 시작해 문서의 형식을 갖추었다. 대부분의 다면 목간처럼 이것도 전면 → 좌측면 → 후면 → 우측면 순으로 썼다. 다시 말하면 목간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쪽으로 썼는데,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한문의 필사 방향과 같다.¹¹⁾

9) 목간 번호는 『한국의 고대목간』(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6), 『나무 속 암호, 목간』(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을 따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2006) 목간 번호는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한다. 월성 해자 목간은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소장품이다.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년의 발자취』, pp.298-299. 1행 하단의 '拜'가 '引'으로 판독되어 있다.

11) 미카미 요사타가(三上喜孝)는 서사 순서를 그림 1의 3면을 1면, 1면을 3면으로 간주하고 3면의 서두인 '牒' 자부터 쓰기 시작했으며, '첩'의 문서 양식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전면 → 우측면 → 후면 → 좌측면 순으로 쓴 것이므로 목간을 잡고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쓴 것이다.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한문의 필사 방향과 반대다.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pp.205-206.

기재 방식에서 서두에 수신인만 적고 발신인이 없는 이 문서는 ‘이미 전에 첩으로 내려온 명령에 근거하여 사경 제작에 필요한 종이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같은 부서 내부에서나 동급의 관련 부서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추정되며, 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사경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문장은 한문을 우리말식으로 배열하는 어순뿐만 아니라 우리말 따 표기가 제대로 나타나는 완전한 이두문이다. 이 목간의 하한 연대가 7세기 후반이므로 동시기에 주로 활동한 설총 당대의 이두 자료로 보기도 한다.¹²⁾

이 목간은 어학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왕경 관리의 생생한 육필을 보여 주고 있어 서예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목서는 해서의 필의가 많은 행서로 쓰였는데, 1행 하단의 ‘拜’ 자처럼 초서로 쓴 글자도 있다. 각 편의 좌우에 여백을 두지 않고 꼭 채워 썼기 때문에 2면의 ‘用’ 자조차 편방향으로 썼다. 2면의 마지막 글자인 ‘斗’ 자는 이 목간처럼 통상 하단에 여백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세로획을 길게 그어 그 여백을 채우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다른 면보다 더 짧게 써 하단이 시원하며 절제미가 돋보인다. 4면 ‘丙’ 자에서 入의 특이한 결구는 이성산성 출토 ‘品世內歲’ 목간의 ‘丙’자와 흡사하다.¹³⁾

필법을 살펴보면 起筆은 藏鋒도 있지만 露鋒이 더 많다. 특히 轉折은 대부분 圓轉으로 쓰여 부드럽고 유려한 맛이 강한데, 2면의 ‘用’, ‘思’, ‘買’ ‘白’ 자의 전절에서는 원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세련미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유창하고 능숙한 솜씨로 힘차게 썼다. 이 목간과 유사한 서풍에 속하는 목간이 몇 점 있다.

첫째, 같은 원전의 필법이지만 149호보다 더 절제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지닌 153호(12호) 목간(그림 2-좌)이다. 판독된 1면의 해서 “四月一日典太等敎事(4월 1일 전태등이 명령하였다)”만으로도 전체 서풍이 그렇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왕명 출납과 조세를 관장하던 관청의 우두머리인 전태등의 명을 기록한 문서인데, 명령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둘째, 분위기가 비슷하면서 양면 문서인 ‘丙午年’ 목간(그림 2-중)이다. 이것은 신라 목간에서는 드물게 양면 모두 3행으로 쓰였는데, 전면은 2행 상부에 “古拿村” 정도만 인식되고 나머지는 묵흔이 지워졌지만 그것만으로도 양면의 서풍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면 1행의 아래부터 세 번째 글자인 ‘入’과 149호 2면의 세 번째 글자인 ‘入’은 한 손에서 나온 것처럼 닮았다. 또 2행 ‘丙午年’ 아래 ‘干’ 자의 두 번째 가로획에서 노봉의 입필과 수필에서의 부드럽고 굽은 회봉 필법, 그리고 3행의 마지막 글자인 ‘一’의 동일한 필법이 149호 2행의 ‘一’, ‘二’ 자 필법과 같다.

이 목간은 2행 중간 부분의 ‘丙午年’으로 연대 추정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노련한 서풍으로 보아 6세기 후반인 586년에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박한 서풍의 해서로 쓴 6세기 중반의 <임신서기석>(552) 이후에 썼고, 행서의 필의가 있는 성숙된 해서로 쓴 6세기 후반의 <남산신성비제10비>(591), 성산산성 ‘壬子年’ 목간(592)과 비슷한 시기에 쓴 것으로 봄이 6세기 신라 서체의 변천 과정으로 볼 때 합당하다.

셋째, 하단에 흠이 있고 사면 중에서 전면에만 목서가 남아 있는 ‘安豆’ 목간(그림 2-우)이다. 목서 “安

12) 정재영, 2008, 「月城亥字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pp.99-100.

13) 정현숙, 2015, 「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일관성 고찰」, 『書藝學研究』 27, 한국서예학회, p.44; 2016, 앞의 책, p.109.

豆三斗大刀八中刀一”은 기필의 노봉, 원전의 필법 등이 149호와 흡사하다. 물품명인 安豆는 綠豆 또는 豌豆로 추정되어 당시 왕성에서 취급한 곡물이 하나 더 늘어났다.

넷째, 해서로 쓴 ‘周公智’ 사면 문서 목간(그림 3)이다. 1면에는 『삼국사기』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관직명 ‘典中大等’이 있는데, 그 결구와 필법이 153호의 ‘典太等’과 닮았다. 노련한 행서로 쓴 3면의 “急匪爲在之”에서 ‘急’, ‘爲’ 자의 원전은 149호 2면의 ‘用’, ‘思’, ‘買’ ‘白’ 자의 원전과 흡사하다. 4면에는 유학이 널리 퍼진 결과 중국 주나라의 周公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이름 ‘周公智’가 있는데, ‘智’는 신라의 인명에서 자주 쓰인다. “文人周公智吉士”는 1, 3면에 비해 너비가 좁은 4면에 써 글자가 장방형이 되었지만 그 필법과 필세는 149호의 3면 또는 ‘丙午年’ 목간과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이 2행으로 쓰인 양면 하찰 ‘白遣’ 목간(그림 4-좌)이다. 1행 중간 부분에 대자로 쓴 ‘白遣’은 신라 왕경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이두로 판단되는데, 이두의 ‘숲고’ 즉, ‘사뢰고(아뢰고)’라는 의미다. 행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로 쓴 글씨가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하다. 장법과 결구가 비교적 정연한 다른 목간들에 비해 장법도 결구도 표준을 벗어나고 글자의 크기에도 변화가 많아 과격적이다. 특



그림 3. 월성 해자 ‘周公智’ 목간, 6-7세기, 신라, 25.9×2.5×2.2cm



그림 4. 월성 해자 (좌) ‘白遣’·(우) ‘味字著作之’(17호) 목간, 6-7세기, 신라, (좌) 19.2×3.9×0.8cm, (우) 14.9×2.5×0.7cm

히 1행 중간의 ‘遣’ 자, 하단의 ‘送’ 자의 ㄹ은 필법도 파책의 표현도 전혀 달리 묘사되었는데, 둘 다 역동적이고 생생하다. 2행은 상대적으로 결구도 정연하고 글자 크기도 비슷하여 1행과 대비된다. 그러나 기필은 대부분 노봉을 사용하여 149호와 유사하다. 문서 목간의 글씨는 보통 차분한 편인데, 이것은 하찰 목간이기 때문에 과감하고 변화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필치가 노련하다.

그런가 하면 하단에 흠이 있는 것으로, 행서와 초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쓴 ‘味字著作之’ 목간(17호)(그림 4-우)은 노봉보다는 장봉을 더 많이 쓴 점에서 위의 목간들과 구별되지만, ‘味’ 자에서 口의 흘림이 ‘白遣’ 목간 1행의 ‘呼’ 자에서 흘린 口와 같은 필법이라 유사한 점도 있다. 첫자인 ‘味’만 긴장한 듯 약간 머뭇거린 느낌이 들지만, 나머지 글자에는 정연함과 노련함 그리고 웅강함과 무밀함이 가득하다. ‘著作’에는 북위풍이 농후하고 마지막 글자인 ‘之’는 초서로 마무리하여 정점을 이룬 上中上의 글씨다. 월성 해자 목간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북위풍 해서이기 때문에 비록 다섯 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데, 성산산성 ‘壬子年’ 목간(592)의 행기가 있는 북위풍과 흡사하다. 또 <남산신성비제10비>(591), 이성산성의 ‘戊辰年’ 목간(608)의 북위풍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월성 해자 ‘丙午年’ 목간(586)과 비슷한 시기의 목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신라에서 6세기 말에 북위풍 해서가 京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은 신라의 글씨가 6세기 전반의 토속적 고박함을 벗어나 웅강무밀하면서 성숙된 해서로 발전되어 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목간 149호와와는 조금 다른 서풍을 구사한 사면 목간 150호(1호)(그림 5)는 1면만 묵흔이 선명하고, 2면과 4면은 묵흔은 있으나 판독이 어렵고, 3면은 묵흔이 없다. 목서는 행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로 쓰였지만 흐름이 자연스러워 행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결구는 안정적이며, 기필은 노봉으로 가볍고 수필은 굵은 장봉으로 무거운 사경의 필의가 느껴진다. 획의 강약과 글자의 크기에 변화가 많고 붓놀림이 자유자재하여, 절제미가 있는 149호에 비하면 활달하고 노련하다. 운필과 필법에서 전체적으로 서자의 능숙한 솜씨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신라 목간 가운데 가장 출중하여 6, 7세기 신라 왕경 관리의 높은 서사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6세기 금석문처럼 1행 하단의 ‘郡’ 자에서 ㅍ이 ㅍ로 쓰여 이것이 6세기 신라의 보편적 결구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양면 목간 158호(22호)(그림 6)는 1행인 전면은 묵흔이 선명하여 “第八卷第廿三大口麻新五衣節草口”로 읽힌다. 후면은 중앙에 큰 글자로 “口食常口”를 쓰고 그 아래에 우측으로 치우쳐 작은 글자로 “口口口口第一卷第口七大口麻口口”를 1행으로 썼으니 2행인 셈이다. 목서는 행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로 쓰였는데, 첫 글자인 ‘第’ 자부터 행서로 써 부드러운 곡선미가 있으며, 동시에 두 세로획으로 인해 직선미도 있다. 글자도 장방·정방·편방형을 적절히 섞어 변화를 주었으며, 필법에서도 기필에 노봉과 장봉이 섞여 있고, 전절에 원전과 방절이 같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대비되는 맛이 있다. 그리고 가로획이 유난히 긴 글자들이 있어 좌우의 여백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결구와 필법을 살펴보면, 두 번 쓰인 ‘第’ 자에서 첫 번째 ‘第’ 자는 가로획이 길고 성글며 전절은 곡선으로 썼고, 두 번째 ‘第’ 자는 가로획이 짧고 밀하며 전절은 굵은 방절로 써 같은 글자에 서로 대가 되는 필법을 구사하여 변화를 주었다. 반면 두 세로획은 글자의 크기에 따라 길이가 다르지만 둘 다 직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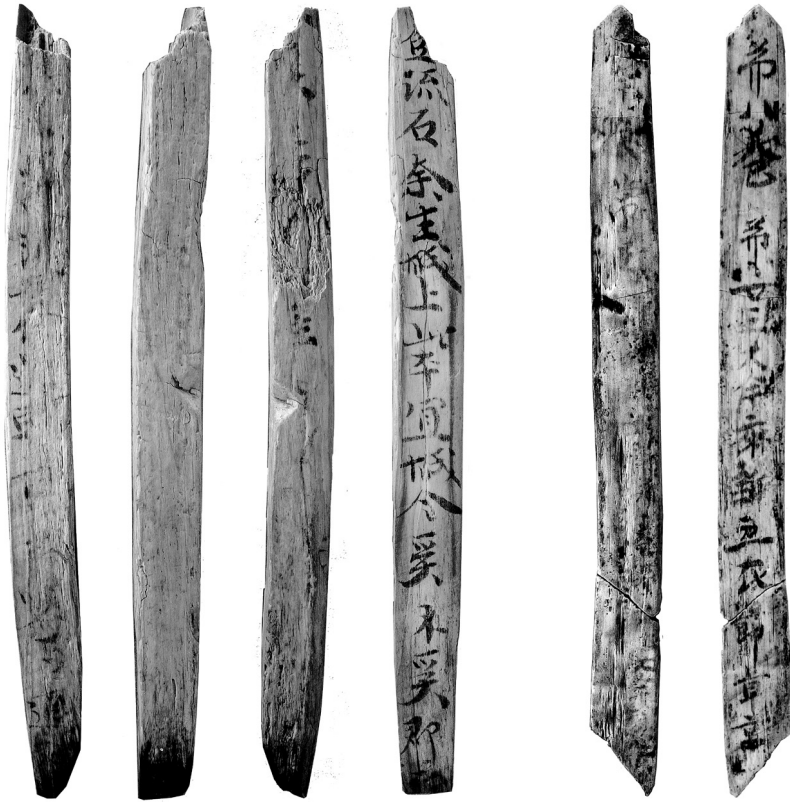


그림 5. 월성 해자 150호(1호) 목간, 6-7세기, 신라, 20.4×1.8×1.6cm

그림 6. 월성 해자 158호(22호) 목간, 6-7세기, 신라, 26.7×2.4×0.9cm

썼다. 그러나 동시에 첫 번째 ‘第’ 자는 세로획의 收筆이 懸針이고, 두 번째 ‘第’ 자는 수필이 垂露여서 필법이 서로 대가 된다. 이것을 종합하면, 첫 번째 ‘第’ 자는 원전의 부드러움과 현침의 날카로움이 대비를 이루고, 두 번째 ‘第’ 자는 진절의 날카로움과 수로의 부드러움이 대비를 이룬다. 이처럼 한 글자에서 각각 또는 동일한 두 글자에서 무의식중에 서로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 것은 서자의 평상시 미감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단의 ‘卍’ 자와 하단의 ‘五’ 자에서 긴 가로획의 직선과 짧은 세로획의 곡선이 대비 속에 조화를 이룬다. 세로획의 쓰임을 살펴보면, ‘新’ 자는 斤에서 마지막 획인 세로획을 짧게 써 글자가 정방형이고, 반대로 ‘節’ 자는 卩에서 세로획은 길게 써 다음 글자인 ‘草’와 부딪히고 글자가 장방형이며, ‘草’ 자의 마지막 세로획은 약간 짧은 듯하면서도 그 아래 글자와 부딪힌다. 이처럼 목간 하단의 글자에서 자주 쓰이는 세로획의 길이와 그에 따른 자형 등이 다양하여 무의식적으로 구사된 서자의 조형 감각이 눈에 띈다. 이것도 서자의 특출한 미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월성 해자 목간 문서의 특징을 통해 적어도 6세기 후반의 왕경 관리들의 서사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성산산성, 이성산성 목간에서 본 지방 관리의 글씨와는 상당히 다른,

행서 또는 행서 필의의 능숙함으로 보아 왕경 관리들은 더 심화된 서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월성 해자 목간은 문서가 주를 이루지만 하찰도 소수 있다. 해서와 행서로 쓰인 목간들이 용도, 즉 문서나 하찰이나에 따라 서풍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설사 서사 솜씨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전체 분위기는 유사하고 필법, 운필 등도 전반적으로 상통한다. 이것은 용도에 따라 서풍이 확연히 다른, 즉 문서 목간은 정연한 해서로, 하찰 목간은 투박한 해서나 행서로 쓴 성산산성 목간과 구별되는 점이다.¹⁴⁾ 전체적으로 수준이 고른 신라 왕경의 관리들은 목간을 통해 기록이라는 실용성과 글씨가 지닌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필이 동아시아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III. 통일신라 촌락문서 글씨와의 연관성

월성 해자 문서 목간의 대표인 목간 149호와 150호는 서풍과 필법이 달라 서자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글씨와 비교할 만한 관리의 육필이 통일신라에서 지본 행정 문서 형태로 존재한다. 목간 149호는 <신라제2촌락문서>와, 목간 150호는 <신라제1촌락문서>와 비교하여 그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려 한다.

먼저 통일신라의 두 촌락문서의 발견 경위와 글씨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신라제1촌락문서>(그림 7)는 1933년 10월 일본 나라현(奈良縣) 나라시에 있는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의 중창 계단 밑의 가운데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13장의 두루마리 경전의 커버인 經帙 중에서 수리를 위해 해체된 華嚴經論第7帙 안의 형겅 안쪽 布心에서 배접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내용을 보니 신라의 촌락문서(또는 村落帳籍)였고, 쇼소인은 이 문서를 사진 찍고 포심을 수리하여 촌락문서를 원 상태로 배접하였다. 촌락문서는 다시 화엄경론질 안에 넣어진 채 봉인되었다.

현존 문서 편 의 연결 상태로 볼 때 이 문서는 완전하게 남아 있는 裏片 가운데 닥종이를 기본으로 하여 이런 크기의 닥종이를 여러 장 연결해서 만든 두루마리 문서로 추정된다. 원문서가 폐기되어 사경소 같은 곳에 불하되고 그 곳에서 경질의 크기에 맞게 일정한 크기로 자르면서 현존 문서 편과 같은 크기로 분해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이 촌락문서는 통일신라의 국가 지배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행정 문서다. 두 편의 문서에는 當縣과 西原京(지금의 청주) 소속 네 마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는 세금을 걷고 노동을 부과하는 기초 장부인데,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다시 작성되었다. 문서에는 마을 구역, 인구 수와 논밭의 넓이, 소와 말의 수 증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역역동원, 토지제도, 경제생활 등 사회 전반의 모습을 말해 주며, 문서 행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14) 정현숙, 2017, 앞의 글, pp.103-104.

15) 윤선태, 2000,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문서의 작성 연대에 관해서 두 편 모두에 기록된 ‘乙未年烟見賜(을미년에 연을 조사하였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을미년(또는 이듬해인 병신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60년마다 돌아오는 을미년 중 언제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695년, 755년, 815년, 875년 설이 제기되었으니 180년의 시차가 있다.¹⁶⁾

문서의 작성지에 관해서는 행정 단위가 다른 當縣과 西原京 소속의 촌들에 관한 기록이 한 사람의 글씨로 쓰인 문서 양식으로 볼 때 당현과 서원경을 행정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熊川州나 中央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본다.¹⁷⁾

문서의 형식은 사경할 때처럼 상하에 천지선을 긋고,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꺾선을 그은 후 각 행에 글씨를 정연하게 놓았다. ‘當縣’, ‘西原京’으로 시작하는 세 행을 제외하고는 각 행의 첫 자가 전체적으로 가지런하여 깔끔한 글씨와 잘 어울린다.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쓴 두 문서는 분명 한 사람이 동시에 썼으며,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755)의 사경풍과 닮았다. 자형은 종이의 형태와 같은 편방형이 주를 이루며, 획의 강약과 밀도 등에서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화무쌍함과 정연함 그리고 리듬감을 동시에 지닌 능숙한 필치와 해서와 행서를 자유로이 오가는 능통함을 보여 준다.¹⁸⁾

전체적으로 월성 해자 목간 150호의 묵서와 분위기가 흡사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기필에서 150호는 노봉이 많고, 〈신라제1촌락문서〉는 노봉보다 장봉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나무와 누르기 쉬운 종이라는 재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두 글씨를 비교해 보면, 글자의 상부에人を 쓸 경우 왼쪽 빼침이 가늘고 오른쪽 파임이 더 굵은 점, 필획의 강약과 글자의 크기에 변화가 많은 점, 편방형의 자형에 차분하면서 노련한 필치, 안정감과 정연함, 그리고 노련함과 유창함을 모두 갖춘 점이 닮았다. 글씨의 이런 유사성과 서사 장소가 같은 중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라제1촌락문서〉와 월성 해자 문서 목간 150호의 서사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제1촌락문서〉의 작성 연대로 7세기 말인 695년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공히 중앙 관리들이 쓴 것으로, 월성 해자 목간 150호 글씨의 수려함이 더 성숙된 것이 〈신라제1촌락문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신라제2촌락문서〉(그림 8)는 사발을 싸고 있던 두꺼운 황갈색 닥종이 문서로, 〈佐波理加盤附屬文書〉라고도 한다. 전면에는 꺾선이 선명하여 행간이 가지런하고, 후면에는 꺾선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행의 행간은 전면처럼 가지런하다. 전면은 지방의 촌에서 올린 말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과 쌀, 콩 등의 貢進物을 달별로 촌 단위로 기록한 장부로, 수납 보관하는 신라 중앙관청인 조부나 창부에서 작

16) 여러 설에 관해서는 송완범, 2007, 「신라의 경제제도와 소위 '촌락문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한국고대사학회, pp.274-275. 더 상세한 것은 윤선태, 위의 글, pp.19-47 참조.

17) 윤선태, 위의 글, p.73.

18) 정현숙, 2013, 「통일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서풍의 특징」, 『書藝學研究』 22, 한국서예학회, p.64; 2016, 앞의 책, p.244.

성한 것으로 본다. 세 사람의 관원명이 보이는 후면은 곡물을 지급한 사실이 적힌 관료의 녹봉지급문서로, 左右司祿館에서 기록한 것으로 본다. 재활용된 종이문서가 끼워져 있는 좌파리가반, 즉 사발은 8세기 전반 工匠府, 鐵鑪典 등의 공방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이나 倭典 또는 領客府에서 포장되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종이가 귀하던 때라 문서의 이면을 재사용했으



그림 8. 신라제2촌락문서, 752년 이전, 통일신라, 29×13.5cm, 일본 東大寺 正倉院

며, 양면을 문서로 사용한 후에도 사발을 쓰는데 한 번 더 사용하였다. 950년경부터 쇼소인 南倉에 소장되어 왔다.¹⁹⁾

행서로 쓴 문서의 전면은 전절이 많은데 대부분 圓轉이라 유려하고 후면은 가로획이 많아 딱딱한 듯 보이나, ‘斗’, ‘米’ 자 등 동일자의 결구와 필법이 같고 긴 마지막 가로획의 俯勢의 곡선미가 같으며, 전체 서풍까지 같아 한 사람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필법에 통달한 달필이라는 사실도 명확하다. 고승의 行狀을 기록한 선사비처럼 돌에 새겨진 행서보다 더 자유로우며, 문서 목간의 행서보다 더 능숙하여 지본 묵서 특유의 맛을 잘 보여 준다.²⁰⁾

월성 해자 목간 가운데 서풍과 필법이 이것과 유사한 것이 사면 문서 목간인 149호다. 전절의 곡선미로 인한 전면의 부드러움은 149호의 2면과 닮았다. 이것은 6, 7세기를 거치면서 중앙 관리의 서사 솜씨가 면면히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통일신라의 두 촌락문서는 용도를 다한 종이문서의 이면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문서가 태어나고 그것이 폐기된 후에는 다시 사발을 쓰는 종으로 재활용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것은 종이가 귀하던 7, 8세기 신라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월성 해자 목간 149호에서 사경에 쓰일 종이 구입에 관한 기록

19)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pp. 78-79; 이용현, 2011, 「사발을 쓴 新羅文書(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검토」, 『특별전 문자, 그 이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 정현숙, 2013, 앞의 글, p. 66; 2016, 앞의 책, p. 246.

을 쓴 것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신라의 월성 해자 목간과 통일신라의 촌락문서는 내용적으로나 서체적으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IV. 일본 아스카 목간 글씨와의 비교

중국에서 시작된 목간문화는 한반도에 전래되어 백제와 신라의 목간 문화가 형성되었고, 한반도의 목간 문화가 일본 목간 문화의 원류가 되었다.²¹⁾ 통일 후 당나라와 대립하면서 신라는 일본과의 연대를 모색했고, 일본도 그것에 응하여 670년부터 701년 사이에 견당사를 파견하지 않은 반면 신라와는 매년 교류했다. 이런 교류로 인한 한반도의 영향이 아스카 목간에 나타난다. 따라서 신라의 월성 해자 목간과 일본 아스카 목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²²⁾

일본의 목간 출토지는 30여 곳인데, 이 중 왕경과 인근 지역은 약 20곳이다(그림 9). 전국에서 출토된 38만 점 이상의 일본 목간은 태반이 고대의 것이며, 고대의 목간은 대부분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되었다.²³⁾ 특히 7세기 말부터 8세기 말까지 약 10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7세기 전반의 목간은 100점 미만인데, 그 중심은 640년대다. 壬申의 亂이 일어난 672년까지의 목간은 수백 점이다. 672년부터 694년까지의 목간은 1만 점 이상이다. 694년부터 710년까지의 후지와라경(藤原京)²⁴⁾ 시기의 목간은 3만 점 이상이다. 710년 헤이조경(平城京)으로 천도 후 784년 나가오카경(長岡京)으로 천도할 때까지의 목간은 지방 목간을 포함하여 20만 점에 달한다. 이후에는 목간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여 중세 이후가 되면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아스카(飛鳥) 시대(593-710)²⁵⁾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목간이 사용된 시기였다.²⁶⁾

신라 경주 월성 해자 목간과의 비교 대상인 일본 목간은 나라(奈良) 시대(710-784) 이전인 아스카 시대의 수도인 아스카경과 후지와라경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의 아스카 목간이다. 아스카의 목간은 6세기 후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고고학적 측면에서 볼 때 640년경부터 사용되었다고 보므로 현재까지의 출토 목간은 대부분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7세기 후반에 집중된 아스카경과 후지와라경 목간은 일본 고대사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다.

21) 이경섭, 2016,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新羅史學報』 37, 신라사학회 참조. 신라와 백제 목간의 비교는 이경섭, 2014, 「신라·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참조.

22) 일본 목간 자료를 제공해 준 나라문화재연구소 万国花 선생께 감사드린다. 일본 목간 관련 표와 그림의 출처, 그리고 목간의 소장처는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10, 「木簡黎明-飛鳥に集ういにしへの文字たち」 참조.

23) 일본의 목간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카에하라 토와의 글이 있다. 榮原永遠男, 2010, 「일본에서의 목간연구와 과제」 『木簡研究』 30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참조.

24) 후지와라경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pp.191-232 참조.

25) 아스카 시대를 아스카 시대(593-645)와 하쿠오(白鳳) 시대(645-710)로 양분하기도 한다.

26)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p.66-67.



그림 10. 難波宮 '무신년'(648) 목간, 660년대, 아스카, 20.2 × 2.7 × 0.3cm

표 1. 백제와 일본의 '戊'자 비교

백제 부여 佐官貸食記목간 (618)	일본 難波宮 戊申年목간 (660년대)	일본 石神 戊寅年목간 (678)

坂市) 나니와궁 유적에서 출토된 '戊申年' 목간(그림 10)이다. 네 번째 글자인 '戊' 자가 특이한데, 백제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출토 '좌관대식기' 목간(618)의

서두인 '戊寅年'의 '戊' 자와 같아서 백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같은 글자가 이시가미 출토 '戊寅年' 목간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되었다. 그러나 '寅' 자는 백제의 '寅' 자와 유사하다(표 1).

오사카시 유적지 출토 목간에 대한 백제 글씨의 영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나니와궁 유적 남쪽에 있는 쿠와즈(桑津) 유적에서 1991년 출토된 7세기 전반의 백제계 목간이다. 쿠와즈 유적에는 백제계 문화 요소가 혼입되어 있어 이 목간의 제작에도 백제계 이주민들이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⁷⁾ 따라서 백제의 좌관대식기의 '戊' 자와 일본 나니와궁 '戊' 자의 유사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라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나니와궁 목간의 '무신년'은 648년이지만 이것이 목간이 작성된 연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면에 시기가 다른 듯한 네 종의 異筆이 적혀 있고, 660년대 토기를 포함한 다수의 공반 유물과 10년 이상의 연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660년대에 648년의 일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따른다면 무신년은 목간을 쓴 연대가 아니며, 따라서 최고의 목간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목간에 쓰인 연대와 목간을 쓴 연대가 일치하는 일본 최고의 목간은 離宮인 아스카경 유적 苑池 유구의 수로에서 출토된 '丙寅年' 목간이다. '병인년'은 666년이다. 원지 유구는 노치노 아스카 오카모토궁(後飛鳥岡本宮, 656-667)의 일부로 그 다음에 축조된 아스카 기요미하라궁(飛鳥淨御原宮, 672-694)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유적이거나 유구의 연대와 모순이 없다. 무신년과 병인년 사이의 간지 목간으로는 '辛酉'(661), '癸亥'(663), '乙丑'(665) 등이 존재한다.²⁸⁾

목간으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나무에 쓴 것으로 이것보다 45년 이른 것이 있다. 호류지(法隆寺)의 금당 석가삼존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의 보완재에 남아 있는 묵서다. 이것은 문짝판으로 추정되는 건축 부재에 묵서한 후에 대좌의 보완재로 사용되었다. "辛巳年八月九日作"으로 판독되는 묵서에서 '신사년'은 621년

27) 김창석, 2008, 「大阪 桑津 유적 출토 百濟系 木簡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장간호, 한국목간학회.

28)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p.41-47.

이다.²⁹⁾ 이것은 사실상 나무에 쓴 것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서라 할 수 있다.

간지 목간이 드문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의 간지 목간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판독이 분명한 것만 해도 50여 점이다.³⁰⁾ 그런데 간지 목간을 살펴보면 덴지조(天智朝, 662-671) 이전과 덴무조(天武朝, 672-686)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 덴지조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덴무조 이후가 되면 675년을 기점으로 매년 발견되고 같은 해에 복수의 목간도 등장한다. 목간에 간지 표기가 일반화된 것은 덴지조 이후이고 목간의 사용은 덴무조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덴무조에 국가 기구의 정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기년을 써야할 필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후지와라궁, 아스카이케, 이시가미 유적에서 출토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까지의 간지 목간은 상부 또는 상·하부에 홈이 있는 하찰 목간이다. 모두 해서로 쓰인 목서는 공진물을 보낸 지역에 따라 고박한 것도 있고 유창한 것도 있다. 같은 목간에서 글자의 우열이 심한 것도 있어 전체적으로 균등한 솜씨의 월성 해자 하찰 목간 목서와 구별된다. 일본 왕경 출토 간지 목간이 대부분 각지에서 보낸 공진물에 매단 꼬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함안 성산산성 목간처럼 글씨가 다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우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신라 왕경에서 생산한 하찰 목간과 비교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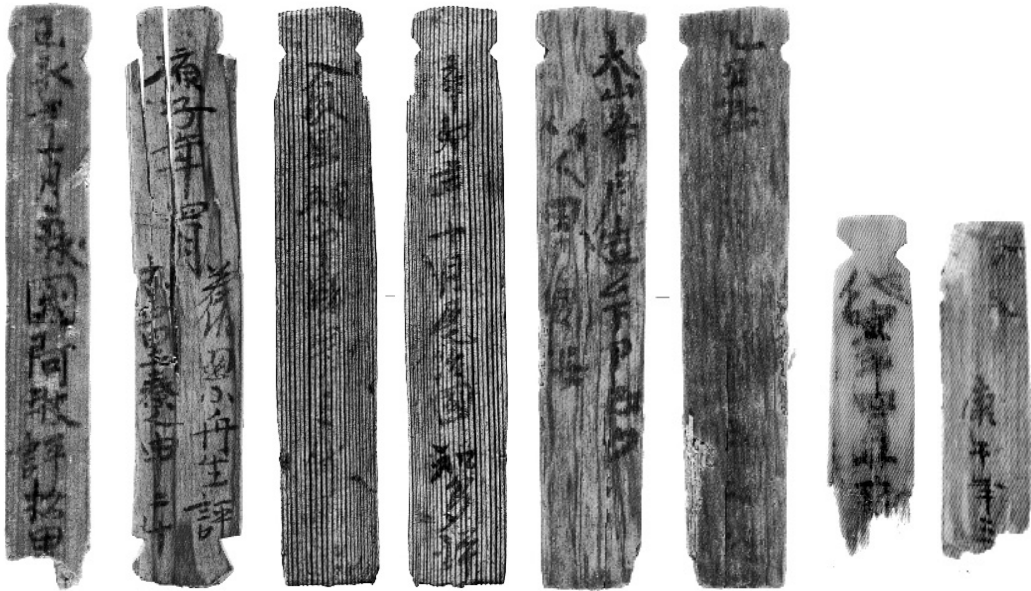


그림 11. 藤原宮 ① 기해년(699)(17.5×2.6×0.6cm)·② 경자년(700)(17×3.3×0.5cm)·③ 신묘년(691)(21.3×3.8×0.5cm) 목간, 石神 ④ 을축년(665)(15.2×2.8×0.4cm)·⑤ 무인년(678)(20.8×15×0.2cm) 목간, 飛鳥池 ⑥ 경오년(670)(7.7×2×0.4cm) 목간, 아스카

29)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49.

30)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池資料館, 2010, 앞의 책, pp.40-53.

후지와라궁 출토 세 하찰 목간은 공통된 내용과 상이한 서풍으로 주목된다. 701년(다이호 원년) 다이호령(大寶令) 시행을 목전에 둔 699년에 행정 구역으로 ‘郡’이 아닌 ‘評’이 사용되어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이 후지와라궁 출토 ‘己亥年’ 목간(그림 11-①)이다. ‘기해년’은 699년이다. 해서로 쓴 목서 “己亥年十月上掾國阿波評松里”로 인해 ‘郡評論爭’이 일거에 해소되었다.³¹⁾ 上掾國은 上總國의 옛 표기다. 일본 고대국가의 지방 행정 구분은 ‘國-郡-里’의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목간에는 上掾國[가즈사국]-阿波評[아와평]-松里[마쓰리]로 기록되어 ‘國-評-里’의 행정 구분 양식을 보여 준다. 목서는 질박하여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후 같은 곳에서 700년에 제작된 ‘庚子年’ 목간(그림 11-②)이 출토되어 행정 구역이 다이호령 시행 이전인 700년까지는 ‘國-評-里’, 701년 이후는 ‘國-郡-里’로 구분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상부 중앙에 큰 글자로 “庚子年四月”, 하부 우측에 “若佐國小丹生評”, 좌측에 “木ツ里秦人申二斗”로 썼으니 3행의 하찰 목간이다. 상하 모두에 흠이 있으며, 나무결이 매끈하고 묵흔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노봉과 원전의 필법, 변화가 많은 획의 굵기, 그리고 유창한 서풍은 월성 해자 하찰 목간인 ‘安豆’ 목간(그림 2-우), ‘白遣’ 목간(그림 4)을 능가한다.

당연히 691년에 쓴 ‘辛卯年’ 양면 목간(그림 11-③)에는 ‘國-評-里’의 행정 구역이 표기되어 있다. 전면의 “辛卯年十月尾治國知多評”, 후면의 “入貝里神部身口三斗”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서의 필의가 강한 해서로 쓴 목서는 ‘庚子年’ 목간(그림 11-②)과는 다른 노련함과 능숙함이 있다. 691년, 699년, 700년에 10년의 시차를 두고 쓰인 위의 세 목간은 서풍도 너무 달라 지역에 따라 글씨의 분위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시가미 출토 665년의 ‘乙丑年’ 목간(그림 11-④)은 공진자의 이름이 후면에 적힌 하찰 목간이다. 전면에는 ‘乙丑年’, 후면에는 2행으로 “大山五十戶造△(牟)下部知ツ從人田部兒安”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國-評-里’ 이전의 행정 구분은 ‘國-評-五十戶’라는 것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다. ‘五十戶’에서 ‘里’로 바뀌는 시기는 681-683년경이다. 후면 1행의 ‘五十戶造’는 사토(里)의 책임자로 나중의 里長과 같은 존재다. ‘牟下部’는 이 일대를 통치하던 모하씨 일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호족층이 670년 경오년적이 작성되기 전부터 氏姓이나 部姓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르는 사람은 다베노코야스다”로 해석되는 2행에서 ‘從’은 공진할 때 필요한 보조 작업(쌀을 찧는 것 등)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베노코야스(田部兒安)는 호족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래에는 일반인에게 부성을 준 것은 670년 경오년적의 작성 단계로 보았지만 이 목간으로 인해 이전부터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³²⁾ <그림 11-③>에서 후면의 ‘神部’의 ‘部’, <그림 11-④>에서 후면 1행의 ‘下部’와 2행의 ‘田部’의 ‘部’가 모두 ‘卩’로 쓰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평양성고성석각제4석>(566)과 6, 7세기 백제의 금석문과 목간

31) 木簡學會 編, 2010,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東京: 岩波書店, p.16;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p.71-

73.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에는 ‘掾’가 ‘挾’으로 판독되어 있다.

32)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p.79-84.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한반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묵서는 ‘己亥年’ 목간(그림 11-①)처럼 고박하다. 같은 이시가미에서 출토된 ‘戊寅年’ 목간(678)(그림 11-⑤), 아스카이케에서 출토된 ‘庚午年’ 목간(670)(그림 11-⑥)의 글씨도 특별한 기교 없이 편하게 써 고박하다.

이들은 대략 100년 전에 쓴 월성 해자의 꼬리표인 ‘安豆’ 목간(그림 2-우), ‘白遣’ 목간(그림 4)보다 솜씨가 뒤쳐졌지만, ‘辛卯年’ 목간(그림 11-③), ‘庚子年’ 목간(그림 11-②)처럼 더 능숙한 것도 있다. <그림 11>의 지방 간지 목간 여섯 점에서 7세기 중반보다 8세기경의 글씨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아스카의 하찰 목간 서체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8세기 서예사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목간이 한 점 더 있다. 다이호령이 내려진 시점인 다이호 연간(701-703)에 쓴 후지와라경 출토 ‘御名部内親王宮’ 양면 목간(그림 12)이다. ‘部’를 ‘冂’로 쓴 위의 하찰 목간과는 달리 ‘部’를 원래 형태인 ‘部’로 쓴 것은 御名部内親王(660-?)이라는 텐지천황(天智天皇, 재위 662-671)의 황녀 이름을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高市皇子의 妃가 되어 長屋王을 낳기도 했다. 후면의 ‘太寶’를 ‘大寶’로 보면 목간의 제작 시기는 701-703년이므로 8세기 초의 목간이다. 다이호령 이후 그의 궁이라 적힌 목간은 하찰과는 다른 해정한 해서로 썼다. 왕경 출토 아스카 목간에서는 처음으로 8세기 초에 웅강한 북위풍이 나타는데, 이것은 신라에서 성행한 북위풍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산신성비제10비>(591), 월성 해자 ‘咏字著作之’ 목간(6세기 말), 성산산성 ‘임자년’ 목간(592), 이 성산성 ‘戊辰年’ 목간(608)이 보여주듯이 신라에서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걸쳐 금석문과 목간에서 북위풍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 목간에서 약 100년 후 같은 서풍이 나타나 양국 서예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12 후지와라경 목간, 701-703, 아스카, 14.2×3.5×0.5cm

한편 간지가 없으면서 끈을 묶는 구멍이 상·하부에 있는 하찰 목간이 있다(그림 13). 후지와라경, 후지와라공 등에서 출토되고 하부에 구멍이 있는 하찰 목간은 대부분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인데, 이것도 홈이 있는 위의 하찰 목간들처럼 다양한 서풍으로 쓰였다.

먼저 후지와라경 출토 목간 세 점을 살펴보자. 상부에 구멍이 있는 목간(그림 13-①)은 글자가 인식되는 전면의 묵서 “但波少初位佐伯連法師 桑田”만으로도 유려한 행서가 능숙함을 알 수 있다. 가운데가 떨어진 목간(그림 13-②)은 전면 서두의 네 글자는 반듯하게 쓰여 후면의 글씨와 별개로 보인다. 너비가 보통의 두 배 정도 되고 가운데를 붙인 목간(그림 13-③)에서 전면 상단은 행서의 필의가 가미되었고, 하단은 반듯한 해서로 쓰였다. 후면의 글씨는 전면과 달리 편안하게 쓴 듯하여 양면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마지막으로 후지와라공 목간(그림 13-④)의 전면은 앞의 것들과는 달리 필치가 과감하지만 하단의 소재 해서에서는 다시 차분해졌다. 이처럼 왕경과 왕궁의 하찰 목간은 다양한 서풍으로 쓰여 공진물을 보면 지역에 따라 글씨의 분위기도 다르다. 그중에는 <그림 11-②>, <그림 11-③>, 그리고 <그림 13-①>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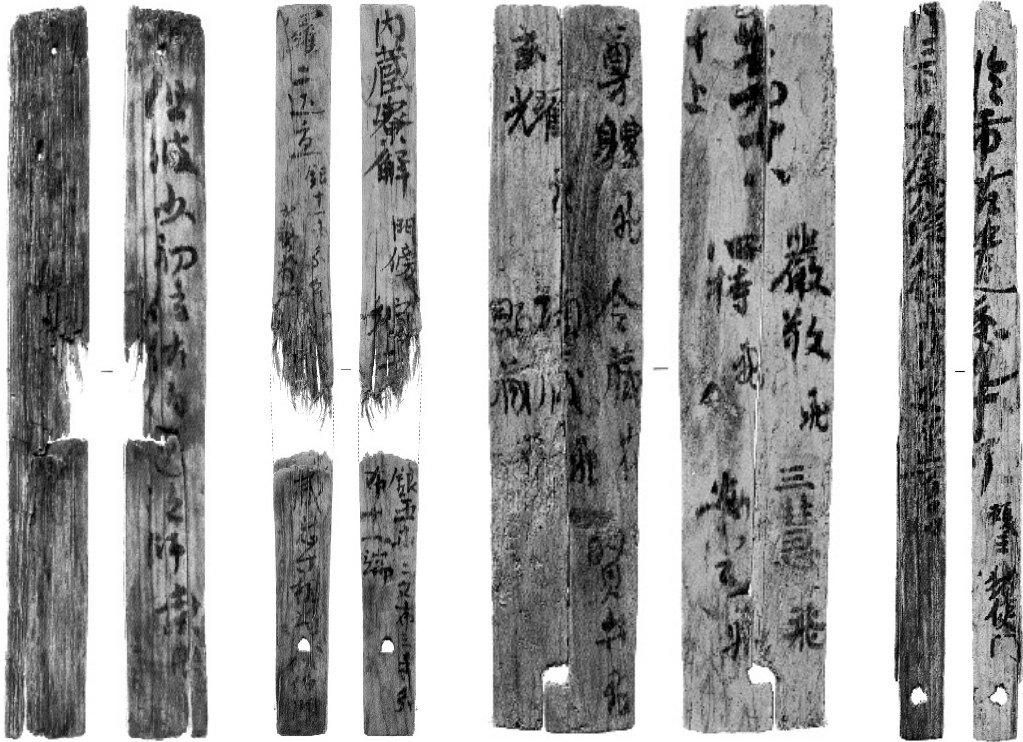


그림 13. 藤原京 하찰 목간① 20.6×2.3×0.4cm, ② (15.5×10.2)×2.1×0.5cm, ③ 17.6×3.8×0.6cm), 藤原宮 하찰 목간④ 25.4×1.8×0.4cm), 7세기 후반, 아스카

럼 뛰어난 솜씨를 가진 관리가 쓴 목간들도 있다.

하찰 목간과는 별도로 『論語』나 『千字文』 같은 유교 경전이나 『관세음경』 같은 불교 경전을 적은 습서 목간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 한반도의 백제계 도래인이 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논어』와 『천자문』은 일본에서 초학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기록한 목간이 후지와라궁, 아스카키케, 이시가미, 간논지(觀音寺) 등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2008년 현재 일본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은 약 28점인데, 도성 출토 목간이 19점, 지방 출토 목간이 9점이다. 이는 지방보다는 도성에서 『논어』 학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천자문 목간은 2008년 현재 17점이 확인되었고, 이 중 7점은 소소인 『천자문』 습서 목간이다.³³⁾ 천자문 목간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논어 목간은 비록 그 내용은 다르지만 신라에서 출토된 예가 두 건 있으므로 일본 논어 목간과의 상관성을 살필 수 있다.

일본 논어 목간에는 주로 『學而篇』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후지와라궁 출토 목간 전면(그림 14-①)에 해서로 쓴 『子曰學而不口』라는 구절이 있고, 도쿠시마시(徳道市) 간논지 유적의 자연 수로에서 출토된 길이 65.3cm의 방주형 사면 목간 좌측면(그림 14-②)에 독특한 예서로 『論語』 卷1 『學而篇』 第1卷의 서두가

33) 三上喜孝, 2008, 앞의 글, pp.196-199.



그림 14. ① 藤原宮 논어 목간(8.5×1.8×0.2cm), ② 觀音寺 논어 목간(65.3×2.9×1.9cm), ③ 飛鳥池 논어·觀世음경목간(14.5×2.1×2cm), ④ 石神 觀世음경목간(679) (18.6×2.×0.42cm), 7세기 후반, 아스카

적혀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세장형 목주의 사면(또는 육면, 팔면)에 『효경』, 『논어』 등의 문장을 기록한 ‘觚’가 있는데 字句의 암기를 위해 사용된 습자의 手本이다. 간논지 논어 목간 출토층의 하층으로부터 祭祀具가 출토되었는데 사용 시기가 7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크므로 논어 목간도 그 무렵의 것으로 추정한다.³⁴⁾

한국의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에서는 『論語』 卷3「公冶長篇」 第5卷을 기록한 목간이 출토되었다. 전자의 사면, 후자의 오면 모두에 해서의 필의를 지닌 행서로 글씨가 쓰였는데, 그 노련함에서 신라 지방 관리들의 내공을 엿볼 수 있다.³⁵⁾ 봉황동 목간은 8세기로, 계양산성 목간은 7-8세기로 추정되니, 계양산성 논어 목간은 일본 간논지 논어 목간과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르다면 신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방주형 목간의 사용도 신라를 통해서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글씨에서는 계양산

34) 木簡學會 編, 2010, 앞의 책, p.18.

35) 정현숙, 2016,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57-60; 2016, 「신라의 서예」, 다운샘, pp.261-263; 2017,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영남서예의 재조명』, 계명대학교 출판부, pp.74-77.

성 목간(그림 15)의 노련한 행서가 간논지 목간의 예스러운 듯 특이한 예서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이 방주형 논어 목간은 양국 지방 관리 글씨의 차이점을 잘 보여 준다.

양국 논어 목간의 기재 방식에도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의 두 점은 모든 면에 논어의 내용을 이어 썼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예가 아스카이케 출토 한 점뿐이고, 그 외에는 한 면에만 『논어』의 구절을 쓰고 나머지 면에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불경과 『논어』가 한 목간의 양면에 쓰인 경우도 있다.(그림 14-



그림 15. 인천 계양산성 논어 목간, 7-8세기, 통일신라, 14×1.5cm, 국립중앙박물관

③) 아스카이케 출토 양면 목간의 전면에는 “觀世音經卷”이, 후면에는 “子曰學□□是是”이 적혀 있다. 또 불경 관련 기록만 쓴 목간도 있다.(그림 14-④) 이시가미 출토 양면 목간에서 전면에는 “己卯年八月十七日白奉經”, 후면에는 “觀世音經卷”이 적혀 있다. ‘기묘년’은 679년이다. 이들 불경 습서 목간도 논어 목간처럼 무기교적 고박함이 특징이다. 편하게 경전을 연습한 서자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 듯하다.

한편 한시 목간이나 만요가나(萬葉仮名)로 와카를 기록한 가 목간이 있다.³⁶⁾ 가 목간은 처음부터 노래를 쓸 목적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노래를 적은 목간이다. 재료의 片面에 1행으로 쓰고 목간의 길이는 60cm 이상이며, 儀式을 행할 때 사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노래의 일부를 쓴 습서 목간과 구별된다.

2006년 전기 나니와궁 서남모퉁이 부근에서 출토된 7세기 중반경의 가 목간(그림 16)은 와카를 一字一音의 만요가나로 썼기 때문에 ‘はるくさのはじめのとし(春草가 시작되는 해)’로 읽힌다.³⁷⁾ 이것도 와카의 32자를 1행으로 썼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60cm 정도의 목간으로 추정된다. 해서로 쓴 목서는 노래하듯이 리듬감을 표현하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두드러진다. 특별한 기교를 부리고자 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쓴 글씨로 보인다. 660년대로 추정되는 나니와궁 ‘무신년’ 목간(그림 10)과 유사한 고박함은 있

36) 三上喜孝, 2010, 「일본 출토 고대 목간 -근년의 출토 목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pp.213-215. 여기에는 세 점의 가 목간이 더 소개되어 있다. 한시 목간으로는 오연절구로 읊은 아스카이케 목간이 있다.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184.

37) 만요가나에 관해서는 David Barnett Lurie, 2016, 「세계의 文字史와 『萬葉集』」, 『木簡과 文字』 16, 한국목간학회 참조.

그림 16. 難波宮 歌木簡, 7세기 중반, 아스카, 18.5×2.6×0.6cm

으나, 같은 장소에서 출토된 아래의 문서 목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하단이 훼손된 나니와궁 목간(그림 17-좌)의 전면은 “廣乎大哉宿世”, 후면은 “是以是故是是”로 읽



그림 17. 難波宮 문서 목간, 7세기 후반, 아스카. (좌) 18×6.5×0.9cm, (우) 13.6×4.1×0.6cm

힌다. 후면에서 서두의 네 글자는 자간이 밀하고 하단의 두 글자는 상대적으로 성글며, ‘是’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다. 양면의 목서는 한 사람이 해서로 썼는데 획의 연결 부분에 행서의 필의로 連筆한 것이 특징이다. 6cm가 넘는 긴 너비에 1행으로 쓴 글씨는 가로획이 유난히 길어 편방형인 자형, 길게 늘어진 파획은 마치 예서로 쓴 漢簡을 연상시킨다. 기필은 노봉과 장봉을 모두 사용하고, 한 획의 기필·행필·수필에서 획의 굵기에 변화가 많고, 전면에서 원전을 노련하게 구사한 것에서 서자의 능숙한 필치가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사경의 필법이 강하며, 신라의 문서 목간과 견주어 볼 만하다.

상단과 하단 좌우가 훼손된 2행의 목간(그림 17-우)은 행서의 필의가 약간 있는 해서로 쓰인 점이 <그림 17-좌>와 같으나 서풍은 대비된다. 차분하고 정연한 글씨에 절제미가 있어 과감한 필치의 <그림 17-좌>와는 상반된다. 전형적인 문서 목간의 형식이며, 그 용도에 부합하는 글씨를 썼다. 이처럼 나니와궁의 세 목간은 각기 다른 서풍으로 표현되어 용도에 따른, 그리고 서자에 따른 서풍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이제 문서 목간을 살펴보자. 이시가미, 아스카이케, 후지와라궁, 후지와라경 출토 문서 목간(그림 18) 가운데 이시가미 목간인 ①은 전형적인 행정 문서다. 목서 “三野五十上書大夫馬草四荷奉(?)”에서 ‘미노 오십상(三野五十上)’은 미노국 충신의 사정 50인을 통솔하는 자다. 같은 곳에서 목서 ‘五十上’이 적힌 토기도 나왔다. ‘후미(書)’는 도래계 씨족인 후미씨(文氏)며, ‘大夫’는 존칭의 표현이다. 이 목간은 미노국 오십상에게 말여물[馬草] 네 짐[四荷]을 바칠 것을 보고 또는 명령하는 문서다.³⁸⁾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쓴 이 목간들은 우열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림 17-우>처럼 비교적 정연하다. <그림 18-①>은 행서의 필의가 있는 웅강한 서풍이고, <그림 18-②·③·⑤·⑥>은 비교적 차분하고 절제된 서풍이며, <그림 18-④>는 양면 모두 첫 글자부터 행서의 필의가 있는 대담한 필치로 시작하고 다시 정연한 필치로 다시 과감한 필법으로 마무리하여 변화미와 절제미가 있어 <그림 18>에서 서사 솜씨

38)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120.



그림 18. 石神 문서 목간① 17.9×19×0.3cm), 飛鳥池 문서 목간② 19×2.9×0.3cm, ③ 21.3×2.4×1.1cm), 藤原宮 문서 목간④ 12.1×2.4×0.3cm), 藤原京 문서 목간⑤ 21.5×2.8×0.6cm, ⑥ 26.7×3.4×0.3cm), 7세기 후반, 아스카

가 가장 유창하다.

이처럼 문서 목간은 대체로 하찰 목간, 습서 목간, 그리고 가 목간에 비해 글씨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월성 해자 문서 목간의 글씨보다는 유창함과 노련함이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일본 목간이 대략 100년 후에 쓰인 점을 감안하면, 7세기 후반 일본 왕경 관리들의 글씨는 단아하기는 하지만 6세기 후반 신라 왕경 관리의 글씨만큼 능숙하지는 못하다.



그림 19. 湯ノ部 '병자년' 문서 목간, 676, 아스카, 27.4×12×2cm

한편 왕경 북쪽에 위치한 시가현(滋賀縣) 유베노(湯ノ部) 유적에서 독특한 기재 방식의 문서인 '丙子年' 목간(그림 19)이 출토되었다. '병자년'은 676년이다. 목간의 너비는 길이의

약 반 정도로 넓은 편이며, 두께는 보통 목간의 약 3~7배 정도 두껍다. 사면 가운데 삼면, 즉 우측면과 전·후면에만 목서가 있다. 2cm 너비의 우측면에 문서의 제목인 “丙子年十一月作文記”를 쓰고 전·후면에 각면 3행으로 글자를 썼다. 내용은 대략 玄逸이 어떤 ‘蔭’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출한 문서로 보인다. 이것은 ‘牒’ 양식의 문서 목간이다. ‘牒’은 일본에서는 율령의 공식령에 규정된 문서양식이다. 개인이 제출한 上申文인 월성 해자 목간 149호를 이것과 같은 ‘첩’ 양식으로 보아 신라의 목간 양식이 일본의 7세기 목간과 8세기 공식령의 규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첩’은 고대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널리 사용된 문서 양식인 만큼 율령제 도입 이후에도 범용성이 높은 문서 양식으로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진다.³⁹⁾

이 문서의 문장 형식은 신라나 백제와 같다. 먼저 제목의 기재 양식은 6, 7세기 백제와 같다. 능산리사지 출토 6세기의 사면 문서 목간 제목인 ‘支藥兒食米記’,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출토 7세기의 양면 문서 목간 제목인 ‘佐官貸食記’(618)와 같이 ‘기록한다’는 의미의 ‘記’를 사용했다.

다음으로 본문의 기재 양식은 5-7세기 한반도의 양식과 같다. 문서의 시작인 전면 1행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글자인 ‘五月中’은 5, 6세기 고구려 비인 <충주고구려비>(449년 추정)의 서두 ‘五月中’과 <평양성고성석각제4석>(566)의 서두 ‘丙戌二月中’, 6세기 신라의 금석문인 <단양적성신라비>(550년경)의 서두 ‘□□年□月中’과 <명활산성비>(551)의 서두 ‘辛未年十一月中’, 목간인 성산산성 사면 문서 목간의 1면 서두 ‘三月中’과 양면 하찰 목간의 전면 서두 ‘正月中’, 그리고 7세기 백제의 ‘좌관대식기’ 목간(618) 서두 ‘戊寅年六月中’에서의 처격조사 ‘申’과 같은 문법인 것으로 보아 이것은 한반도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해서로 쓴 묵서는 삼면 모두에서 일정한 장법, 균정한 결구와 필치를 사용하여 문서라는 용도에 어울리는 솜씨를 발휘했지만 왕경의 문서 목간보다는 더 질박하다. 또 장법, 결구, 운필, 필법 등이 월성 해자의 문서 목간에는 미치지 못했다. 100년 전 신라 왕경 관리의 글씨와는 견줄 바가 아니며, 종이와 나무라는 서사 재료의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보다



그림 20. 小敷田 목간, 7세기, 아스카, (좌) 37.8×2.8×0.3cm, (우) 40×2.8×0.5cm

39) 三上喜孝, 2008, 앞의 글, pp.203-206. 동급 부서에 보낸 문서라는 정재영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상급 부서에 올리는 문서로 본다.

불과 20년 후에 통일신라 왕경 관리가 쓴 <신라제1촌락문서>의 유창함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왕경에서 먼 지방의 문서 목간 글씨가 더 뛰어나 일본 목간에서는 경향으로 나누어 글씨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사이타마현(埼玉縣) 교다시(行田市) 코시키다(小敷田) 유적에서 출토된 양면 목간(그림 20)의 글씨는 위에서 본 왕경과 인근 유적지 출토 문서 목간의 글씨보다 더 능숙하며, 그래서 월성 해자 목간과 견줄 만하다. <그림 20-좌>⁴⁰⁾는 문장의 구성이 월성 해자 목간 149호(그림 1)와 유사하여 신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전면의 목서 “今貴大德若者御前頓首拜白云”을 월성 해자 149호 1면의 목서 “大鳥知郎足下萬拜白口”와 견주어 보면, 전자는 ‘어전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말한다’고 하고, 후자는 ‘대조지랑에게 만배하며 말한다’고 한다. <그림 20-우>는 ‘□□代等에게 포 네 매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서인데, 후면의 마지막에 문장 종결사 ‘之’로 글을 맺었다.

목서를 살펴보면 <그림 20-좌>는 노련함과 능숙함이 일본 문서 목간 가운데 으뜸이다. 특히 행기가 강한 하부에서는 장봉과 노봉의 혼용, 노숙한 원필의 전절, 획간의 連筆, 획의 강약 등에서 변화미와 성숙미가 돋보인다. 월성 해자 목간 149호의 정방형 또는 편방형과는 달리 장방형으로 쓰여 시원스럽다. 문장 마지막의 ‘白云’을 합자로 써 위의 장방형과 같은 느낌으로 만든 것은 서자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보여 준다.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 어전에 고하는 글이므로 코시키다 관리 가운데 글씨에 가장 능숙한 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0-우>는 이것과는 상반되는 자유자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절제미를 지니고 있다. 細筆의 능숙한 붓놀림, 장방형과 정방형의 혼용 등 전체적으로 성숙된 솜씨를 드러낸다. 이 두 목간이 보여준 코시키다 관리의 글씨는 왕경과 그 인근 지역 관리의 글씨를 뛰어넘는다. 7세기 일본의 목서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지방 관리의 솜씨가 더 출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월성 해자 목간과 비교할 때도 대략 100년 후의 글씨임을 감안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2002년 이시가 미 유적에서 중앙에 지름 1.3cm의 작은 구멍을 가진 특이한 형태인 원반형 목간(그림 21)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길흥을 적은 달력인 具注曆이며, 689년 3, 4월의 역으로 일본 최고의 달력이다.⁴¹⁾ 지역은 다르지만 위의 ‘병



그림 21. 石神 具注曆, 689, 아스카, 10.8×10×1.4cm

40) 呪符木簡이라는 주장이 있다.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10, 앞의 책, p.65.

41)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앞의 책, pp.101-109.

자년' 문서 목간(그림 18)보다 13년 후에 쓴 것임에도 글씨의 수준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무와 종이라는 서사 재료의 차이를 감안하고도 불과 6년 후에 쓴 <신라제1촌락문서>의 노련함과는 견줄 바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의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왕경과 왕궁 그리고 인근 지역 출토 목간은 용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서풍이 조금씩 다르다. 6세기 후반의 신라 월성 해자 목간보다 약 100년 후에 쓴 글씨가 고박하기도 하고 유창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 목간이 왕경의 것보다 더 뛰어나기도 해 일본 목간을 경향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글씨의 수준을 경향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8세기 초의 지방 목간 글씨는 월성 해자 목간에 견줄 만하기도 하고 신라에서 보이는 북위풍의 해서도 있어, 신라가 일본 서예에 미친 영향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V. 맺음말

본고는 6, 7세기에 쓰인 신라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 그것과 7, 8세기에 쓰인 통일신라 촌락문서 글씨와의 연관성, 그리고 7, 8세기 일본 아스카 목간 글씨와의 비교를 통해 월성 해자 목간 글씨가 동아시아 서예사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대부분 문서인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특징을 살폈다. 목간 149호는 圓轉으로 인한 유려함과 세가 약한 파획으로 인한 절제미를 보여 준다. 목간 150호는 글자의 크기, 획의 굵기 등에 변화가 많고 운필이 자유자재하여 빼어나다. 목간 158호는 원전과 방절, 직선과 곡선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자이형을 잘 표현하여 149호, 150호와 다른 분위기로 뛰어나다. 특히 7세기 초에 쓴 이성산성의 '戊辰年' 목간보다 더 능숙한 북위풍 목간도 있어 6세기 말경 신라의 해서가 고풍을 벗어나 성숙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왕경 관리의 글씨는 지방 관리의 글씨와는 확연히 구별되어 왕경에서 더 심도 있는 서사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에서는 통일신라 촌락문서 글씨와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8세기경 각각 다른 서풍으로 작성된, 일본 도다이지 쇼소인 소장 두 촌락문서의 글씨를 살핀 결과 그 출중함이 7세기경 작성된 월성 해자 문서 목간에 근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월성 해자 목간 149호는 752년 이전에 쓴 <신라제2촌락문서>와, 월성 해자 목간 150호는 695년에 쓴 <신라제1촌락문서>(695)와 서풍이 흡사하여 왕경 관리의 글씨가 100여 년 동안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일본 아스카 목간 글씨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의 아스카 목간은 문서의 기재 방식, 문장의 양식 등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백제의 수도인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왜인의 이름이 적힌 7세기의 '那尔波連公' 목간과 『논어』의 구절이 적힌 7, 8세기의 신라 계양산성의 방주형 논어 목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글씨에서는 일본 나니와궁 출토 660년대의 '戊申年' 하찰 목간과 618년의 백제 '좌관대식기' 목간에 기록된 '戊寅年'에서 특이한 '戊' 자의 형태가 같아 백제 글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세기 초

의 후지와라경 목간에서는 웅강한 북위풍이 나타나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걸쳐 신라의 금석문과 목간에 사용된 북위풍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출토 목간의 수량으로 볼 때 고대 일본은 신라보다 훨씬 활발한 문서 행정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결과 용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서자에 따라 다양한 서풍을 구사했다. 고박함에서 유창함으로 변화하는 하찰 목간, 질박한 습서 목간, 천연스러운 가 목간, 정연하고 절제된 문서 목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자의 개성을 표현했다. 글씨에 京鄕의 차이가 있는 신라와는 달리 일본 글씨에는 그런 차이가 거의 없다. 7세기 말과 8세기 초에는 지방의 목간이 월성 해자에 비견될 만큼 뛰어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7세기 후반의 일본 왕경 목간 글씨는 6세기 후반의 월성 해자 목간 글씨의 변화무쌍함과 능수능란함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신라의 왕경 관리가 쓴 월성 해자 문서 목간 글씨의 출중함은 동아시아 서예사에서 월성 해자 목간의 위상을 한층 높여 준다.

투고일: 2018. 4. 30.

심사개시일: 2018. 5. 1.

심사완료일: 2018. 5. 24.

1. 단행본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2017, 『영남서예의 재조명』, 계명대학교 출판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김해박물관, 2012, 『나무, 사람 그리고 문화』.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09,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月城孩子 發掘調査報告書Ⅱ -고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년의 발자취』.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月城孩子 發掘調査報告書Ⅲ(4號 孩子)』.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통천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11, 『특별전 문자, 그 이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국립중앙박물관, 2016, 『세계유산 백제』.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고대목간』 개정판.
- 김남형 외, 2017, 『한국서예사』, 미진사.
- 이치 히로키 지음, 이병호 옮김, 2014, 『아스카의 목간』, 주류성.
- 정현숙, 2016, 『신라의 서예』, 다운샘.
- 한국고대사학회, 2007,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 논문

- 강애경, 2006, 「월성 해자 출토 목간 및 목제품의 수종」, 『月城孩子 發掘調査報告書Ⅱ -고찰-』,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창석, 2008, 「大阪 桑津 유적 출토 百濟系 木簡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 Lurie, David Barnett, 2016, 「세계의 文字史와 『萬葉集』」, 『木簡과 文字』 16, 한국목간학회.
-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 三上喜孝, 2010, 「일본 출토 고대 목간 -근년의 출토 목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 송완범, 2007, 「신라의 경제제도와 소위 '촌락문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한국고대사학회.
- 榮原永遠男, 2010, 「일본에서의 목간연구와 과제 -『木簡研究』 30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 윤선태, 2000,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선태, 2005, 「월성 해자 출토 신라 문서 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 이경섭, 2013, 「新羅 木簡文化의 전개와 특성」, 『民族文化論叢』 5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 이경섭, 2014, 「신라·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경섭, 2016, 「6-7세기 한국 목간을 통해서 본 일본 목간문화의 기원」, 『新羅史學報』 37, 신라사학회.
- 이동주, 2009, 「월성 해자 출토 목간의 제작기법」,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 이용현, 2011, 「사발을 쓴 新羅文書(佐波理加盤附屬文書)의 검토」, 『특별전 문자, 그 이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 정재영, 2008, 「月城核字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 정현숙, 2013, 「통일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서풍의 특징」, 『書藝學研究』 22, 한국서예학회.
- 정현숙, 2015, 「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일관성 고찰」, 『書藝學研究』 27, 한국서예학회.
- 정현숙, 2016,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한국학논집』 6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정현숙, 2017,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영남서예의 재조명』, 계명대학교 출판부.
- 정현숙, 2017, 「신라의 서예」, 『한국서예사』, 미진사.
- 홍기승, 2013, 「경주 월성 해자·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 奈良國立博物館, 2002, 『第54回 正倉院殿』.
- 奈良文化財研究所, 2010, 『天平びとの声をきく—地下の正倉院·平城宮木簡のすべて』.
- 奈良文化財研究所, 2013, 『改訂新版 日本古代木簡字典』.
- 木簡學會 編, 2010,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東京: 岩波書店.
-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10, 『木簡黎明—飛鳥に集ういにしへの文字たち』.

〈Abstract〉

Calligraphic Materials of Ancient East Asia and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Jung, Hyun-sook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alli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of Silla, to find out the calligraphic relationship with two village documents of the United Silla, and to search for the calligraphic influence to the wooden tablets of Aska, Japan.

First, calligraphy of the document wooden tablets among all the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shows round turning brush and square turning brush, fluidness and strongness, and change and restraint. Especially, by the end of the 6th century the Northern Wei style showing the changeable process from the ancient Silla style to the Chinese style clearly appears on the tag wooden tablets. The Northern Wei style of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is more fluent than that of Iseongsanseong Fortress wooden tablets of the early 7th century. It tells us that the writing of capital officials is superior to that of local officials.

Next, the regular and running scripts on the two village documents of the United Silla from the late 7th to the early 8th century are more advanced than those of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of Silla. It reveals the calligraphic change of Silla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nd means that calligraphy culture was transmitted from the Silla to the United Silla.

Lastly, we can confirm that the calligraphy of wooden tablets of Aska, Japan, in the 7th century was influenced by that of Baekje and Silla. Especially, the Northern Wei style on Hujjwarakyo wooden tablets in the early 8th century seems to be the influence of Silla. Ancient Japan produced numerous wooden tablets compared to ancient Korea. It means that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using wooden tablets were actively used. Nonetheless, the writing of wooden tablets of Aska in the late 7th century does not reach that of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of Silla in change and skill.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showing the excellent writing by capital officials are outstanding calligraphic materials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East Asian calligraphy.

▶ Key words: wooden tablets of Silla, wooden tablets of Baekje, Wolseong Moat wooden tablets, village documents of the United Silla, wooden tablets of Aska